

한정호의 예술과 정치

캠페인송으로 '프리덤' 선택, 해리스 음악 전략도 실패

〈비운세 노래〉

한정호
공연평론가·에투알클래식 대표

흑인 정체성 강조할 기회 놓쳐
악물 입법 강화 입장과도 배치

백악관은 美 최고의 공연 예술장
클래식 역사 빛낸 거목들 거처가

오바마 총기 희생자 장례식 노래
비극을 화합으로 이끈 음악 보여줘

자메이카계 흑인과 인도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카밀라 해리스는 대선 내내 다층적 정체성으로 발목 잡혔다. 트럼프는 지난 여름 해리스가 부상하자 "그녀는 최근에야 흑인이 되었다"고 공격했고, 팝가수 재닛 잭슨은 "해리스는 흑인이 아니다. 내가 듣기로는 인도 사람"이라고 영국 가디언지에 인터뷰했다. 하와이 출신 버락 오바마는 "진짜 흑인" 미셸을 곁에 두고 약 15퍼센트에 달하는 미 흑인 유권자에 다가섰지만, 해리스는 흑인 유권자 비율이 30퍼센트를 웃도는 조지아에서 패하는 등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인 흑인 공약에 실패했다. 정치인의 문화적 취향을 대중에게 노출하고 득표로 연결하는 선거 준비의 기본적 세팅이 부실했고 큐레이팅도 소략했다.

트럼프, 의전서 음악 선곡 큰 비중 안둬
해리스는 음악 전략에도 실패했다. '흑인 사회 하버드'로 꼽히는 하워드대를 다닌 해리스의 교육 배경이 거북한 흑인 저학력층을 향해 그녀도 흑인임을 호소할 코드로 정통 흑인음악이 있었다. 해리스 캠프가 택한 캠페인송은 비운세의 '프리덤(Freedom)'이었다. 각 분야에 광범위한 연인을 갖는 게 지도자의 필수 덕목이긴 한데, 경향주에서 '사이 트럼프'로 돌아서려는 흑인 남성층을 붙잡기에 흑인 여성 인권을 호소한 '프리덤'이란 메시지는 도덕률처럼 진부했다. 2020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시절에도 아리아나 그란데, 배드 비니 같은 히스패닉음악 선호를 알리며 소외층 지지를 도모했지만, 정작 공식 후보가 된 2024년 흑인과 이민자, 백인 유권자 사이에서 해리스는 모호한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기간, 유명 스트리밍사이트 스포티파이를 활용한 캠페인은 해리스의 흑인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알릴 기회였다. 그런데 홍보 모델은 인도계 영국인 싱어송라이터 찰리 XCX가 맡았다. 악물 입법 강화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허용으로 급선회한 해리스는 각성제 사용을 권하는 노래와 조급하게 손 잡으며 결국 흑인 정체성 공세를 되반아칠 기회를 날렸다. 최대경합주 펜실베이니아에선 그곳 출신 테일러 스위프트의 강력 지지에도 패했다. 백악관 노래 해방기념일 행사에서 흑인 가스펠 가수에 이끌려 어색하게 춤추는 장면이 해리스가 지닌 흑인 정체성이었다.

이제 2025년 1월 트럼프 2기 대통령 취임식에 어떤 음악가와 가수가 오를지가 음악계의 관심사다. 2017년 1기 취임식에는 준비위원회가 초청한 저명 음악 인사들이 대거 불참해, 공개 오디오에 입상한 가수 예반 제키초가 미국 국가를 불렀다. 축하연에서 부인 멜라니아와 프랭크 시나트라 'My Way'에 맞춰 춤을 추며 임기를 시작한 트럼프는 2020년 대선 패배 후 버클리 피플의 'YMCA'를 들고 전용기에 오르며 '다시 돌아오겠다'는 문자를 소셜미디어에 올렸었다.

세 차례 대선 동안 트럼프는 2016년 미국 대중음악 잡지 '롤링스톤'에 밝힌 클래식리스트와 거의 동일한 음악 취향을 유지했다. 흑인 가스펠 싱어 니나 시몬, 북아일랜드계 블루스 뮤지션 벤 모리슨을 꼽은 건 상대적으로 취약한 득표층을 향한 손짓이었다. 내치와 외교에서 불가피하게 클래식 음악과 음악가를 섭외하던 과거 미국 행정부와 달리 트럼프는 의전에서 클래식 뿐 아니라 음악 선곡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았다.

2019년 6월 공식 방한 때도 그랬다. 오산가지 격



2017년 자유의날 행사로 워싱턴 케네디센터 내셔널 심포니 공연을 찾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015년 찰스턴 교회 총기 사건 희생자 추도식에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선창하는 버락 오바마(가운데) 대통령.

납고에서 열린 미군 위문 행사에 트럼프가 등장하자 록그룹 AC/DC의 '번더스트럭(Thunderstruck)'이 흘러 나왔다. 우리 정부는 20분으로 조율된 청와대 국민만찬 음악 무대에 KBS교향악단을 투입하고 미 대통령 의전 입장곡 '헤일 투 더 차프(Hail To The Chief)', 주제의 '경기병' 서곡을 연주하며 기존 트럼프 행사 음악과 보조를 맞췄다.

트럼프가 재임성향 백악관은 미국 클래식계에선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공연 예술장"으로 불린다. 미국 2대 대통령 존 애덤스 시절 완공된 백악관은 평소엔 대통령 집무 공간이지만 밤이면 미국 클래식 역사를 빛낸 거목들이 거처한 명소다. 미 헌정 역사를 살피면, 초대 워싱턴 대통령 시절부터 최고 권력자 주변에 클래식이 함께 했다. 워싱턴의 소녀 넬리가 바흐의 '클라비앙을 위한 소나타'를 즐겨 연주한 기록이 있다. 존 아담스는 부인 아비게일과 파리 방문에서 글록의 오페라를, 영국 방문에서 헨델의 오페라를 관람했다.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클래식 악기를 가장 잘다뤘다고 평가받는 토머스 제퍼슨은 손수 코렐리와 비발디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했고, 헨델 오페라와 오라토리오를 직접 편곡할 정도의 실력자였다.

20세기 들어 백악관은 미국으로 망명한 저명 음악가들을 환대했다. 칼빈 콜리지는 러시아를 탈출한 라흐마니노프를, 아이젠하워는 폴란드에서 나

온 피아니스트 아르투르 루빈슈타인을 백악관에 불렀다. 케네디는 작곡가 이고르 스트라빈스키를 격려했고, 스페인의 프랑코 독재 정권과 불화한 첼리스트 파블로 카살스도 위로했다. 카살스는 케네디 초창보다 30년 전인 프랭클린 루즈벨트 시절에도 백악관에서 연주한 적이 있다.

1963년 암살당한 케네디의 예술 취향을 기억하는 장소도 공연장인 케네디센터다. 1971년 9월 레너드 번스타인 작곡 '미사'로 개관했지만, 개관작을 의뢰한 미망인 재클린은 개관 공연에 불참했다. 개관 3년 전 선박왕 오나시스에 재혼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대신 케네디의 모친 로즈가 행사 안주인이 됐다. 케네디는 생전에 워싱턴 내셔널 오페라를 가까이 했고, 케네디센터는 지금도 오페라와 발레를 포용하면서 워싱턴 클래식 문화의 중심 역할을 한다.

냉전 시기 소련과 접목하게 갈등한 미국 대통령들에게 클래식은 위로를 제공했다. 트루먼은 15세에 콘서트 피아니스트와 정치인 사이에서 진로를 정했고, 쇼팽 왈츠와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4번을 평생 즐겼다. 린든 존슨은 1958년 적성국 소련에서 열린 차이콥스키 콩쿠르 피아노 부문에 우승한 텍사스 출신 반 클라이번을 각별히 아꼈다. 존슨의 백악관은 반 클라이번의 우승을 공산주의를 제압한 자유 진영의 승리로 치환해 홍보했다. 반 클라



백악관 공연에 피아니스트 반 클라이번을 초청한 조지 부시(오른쪽) 대통령.

[AP=연합뉴스]

이번은 차이콥스키 콩쿠르 우승 정인 트루만 정부 시절부터 말년에 오바마 정부까지 4대 대통령들과 친교를 나누며 백악관에서 본인 연주회를 가졌다. 대통령들은 당적 구분 없이 그를 불렀고 정객들과 즉흥 연주를 함께 했다. 반 클라이번이 미국 클래식의 상징이 된 이윽다.

오바마 1기 취임식선 인종 융화 4중주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불명예 퇴진한 닉슨은 피아노와 색소폰, 바이올린에 능했다. 국정이 끝나면 케네디센터로 가서 워싱턴 내셔널 심포니 공연을 보며 망중환을 즐겼다. 오케스트라 지휘와 성당에서의 오르간 연주를 꿈꿨지만 이루진 못했다. 카터는 현악 4중주단 연주회를 백악관에서 곧잘 열었다. 도쿄, 가르네리 4중주단이 그렇게 들어왔고 루돌프 제르킨(피아노), 아이작 스티븐(바이올린)도 실내악 주자로 백악관에 출입했다. 이스트룸에서의 공연 기록이 음반과 영상으로 남아있다. 배우 출신 레이건은 스타성이 빛나는 안나 모포, 제시 노먼 등 디바들을 불러 백악관의 밤을 빛냈다. 뉴욕 필하모닉, 보스턴 팝스 오케스트라가 PBS TV 시리즈 '백악관 연주회'에 단골로 출연한 것도 레이건 때다. 조지 부시는 할렘 소년 합창단을 불렀고, 조지 W. 부시도 흑인 가스펠 가수를 초청해 흑인 교회를 고려하던 아버지 뜻을 따랐다.

미 대통령 역사에 음악과 클래식을 성공적으로 사용한 대표 사례는 오바마다. 2015년 찰스턴 흑인 교회 총기 사건 희생자 장례식에서 오바마는 교계 지도자 앞에 서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선창했다. 오바마 육성에 맞춰 목회자는 주일새를 넣고 추모객은 노래를 따라 불렀다. 비극도 화합으로 이끄는 음악의 힘을 오바마가 보여줬고, 워싱턴포스트는 이를 오바마 재임 8년 최고의 명장면으로 꼽았다. 2008년 1기 취임식에서 백인(이차크 필만), 아시아계(요요마), 히스패닉(가브리엘라 몬테로), 흑인(앤서니 맥길) 4중주를 편성해 미국의 인종 융화를 대외에 과시한 것도 오바마다. 미셸은 "어렵게 익힌 클래식 사운드가 인간의 정신을 고양하고 상상력을 촉진한다"고 남편의 음악 정치를 뒷받침했다. 과연 트럼프 2기 백악관 음악 정치는 어떻게 전개될까.

〈광주일보와 중앙SUNDAY 제휴 기사입니다〉

한정호 런던 시티대 대학원 문화정책 매니저인 트 석사. 발레리나 박세은, 축구인 박지성 등 예술체육계 명사의 에이전시와 문화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에투알클래식 대표를 맡고 있다. 월간 객석, 일본 오케스트라연맹에서 일했고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다양성위원회 민간위원이다.